



즉시 배포용: 2021년 6월 8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8억 달러의 코로나19 팬데믹 중소기업 회복 지원금 프로그램의 자금에 대한 세금을 면제하는 법안을 제안

프로그램 신청은 6월 10일 시작, 최대 5만 달러의 지원금을 이용 가능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8억 달러의 코로나19 팬데믹 중소기업 회복 지원금 프로그램(COVID-19 Pandemic Small Business Recovery Grant Program)의 보조금에 대한 세금을 면제할 법안을 제안했습니다. 프로그램 신청은 팬데믹의 경제적 피해로부터 회복하고자 하는 중소 또는 영세기업, 중소기업 독립 예술 및 문화 단체가 자격이 있으며 6월 10일부터 신청을 접수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소기업들은 오랫동안 뉴욕주 경제의 중추였지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으며, 주정부가 이 중요한 부문을 돕기 위해 나서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우리는 8억 달러의 코로나19 팬데믹 중소기업 회복 지원금 프로그램을 통해 확실하게 지원금을 받는 기업을 도울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이 법안은 이러한 기금에 대한 주 세금을 없애 모든 달러를 기업에 제공하고 미래의 뉴욕 경제를 재건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유연한 사용이 가능한 최대 50,000 달러 규모의 지원금은 지원 대상 중소기업에 제공되며, 임금 지급, 임대료 또는 모기지 상환, 세금, 공과금, 개인 보호 장비, 기타 팬데믹으로 인해 발생한 사업 비용 등 운영 경비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330,000개가 넘는 중소 및 영세기업은 이번 프로그램 신청 자격이 있으며, 여기에는 주정부가 공인한 소수자 및 여성 소유 기업(Minority/Women-owned Business Enterprise, MWBE)의 57%가 포함됩니다.

중소기업 회복 지원금 프로그램

중소기업 회복 지원금 프로그램은 중소기업 및 영세기업, 중소 규모의 영리 독립 예술 및 문화 단체에 자금을 제공하여 팬데믹의 경제적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소수자 및 여성 소유 기업, 장애로 퇴역한 퇴역 군인 소유 기업, 퇴역 군인 소유 기업,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소외된 지역사회에 위치한 비즈니스 소유주 등 사회 및 경제적 소외계층에 우선적으로 지원이 제공됩니다.

지원금 규모는 최소 5,000 달러에서 최대 50,000 달러이며, 2019년 뉴욕주 기업 연간 총 매출을 근거로 산출될 것입니다. 환급 대상으로 산정되는 코로나19 관련 비용은 2020년 3월 1일부터 2021년 4월 1일 사이에 발생해야 하며 다음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급여 비용
- 뉴욕주 부동산에 대한 상업용 임대료 또는 모기지 상환
- 지방 재산세 또는 교육세 납부
- 보험 비용
- 공과금
- 근로자와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 보호 장비 구입 비용
- 난방, 환기 및 에어컨 비용
- 기타 기기 또는 장비 비용
- 코로나19 보건 및 안전 프로토콜 준수에 필요한 소모품 및 자재 비용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